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7차 회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2부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2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의 선지자적 직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18:14-22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22에서 동일시한 것처럼 모든 선지자의 계보가 그리스도로 절정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라는 진술을 한 분으로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적어도 한 번은 "너희는 들었다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21, 22, 27, 28, 33, 34, 38, 39, 43, 44에서 매번 그는 구약성경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너희가 들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혼에 대한 허락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권위 있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급진적이고 놀라운 가르침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교사입니다.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가르치지 않고, 큰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가르칩니다. 사실, 귀신들은 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에게 복종합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주제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태 복음 5장 1절의 작은 배경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설교는 마태 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선지자로서의 예수의 사역에서 가장 광범위한 부분 중 하나에 주어집니다.

에서 그들은 패턴을 따른다. 진정으로 행복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 다음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들을 위해 구원받는다. 그것이 그 형식의 의미이다.

예를 들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10절에 포함된 내용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은 양쪽 끝에서 끝나고, 마지막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설교는 지금의 삶에 관한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급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이유로 설교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영적 빈곤을 하나님과 그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궁극적인 필요로 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만,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정말 잘 맞는 구절은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것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각각의 행복은 최후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최종 입양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또는 딸로 최종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파급 효과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미 여기 행복론에서, 경건한 남자와 여자의 성격을 묘사하는 설교 서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된 요점은 궁극적으로, 하지만 물론 함축된 의미는 우리가 이미 그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내내 계속되는 아버지의 아버지됨과 우리의 아들됨의 원리를 적용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마태복음 5장의 나머지 부분은 행복론 다음에 나오는데, 11절과 12절에서 박해를 받는 제자들 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 예수님은 거기서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 이전의 선지자들과 여러분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5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여기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빛나고 숨길 수 없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 여러분 의 빛을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들은 세상에 동조해서는 안 되며, 세상에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 가운데 살고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 그리고 그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나중에 설교에서 그것을 정죄하십니다. 그들은 이웃, 특히 이 맥락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44절과 45절에서 다시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의 초판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약성경 인용문을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전부 대문자였습니다. 이후 판에서는 첫 부분만 대문자로 표기했는데, 적을 미워하라는 표현이 대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성경 원칙에 대한 바리새적 해석,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적을 사랑하고 당신의 적을 미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구약을 비판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적을 사랑하고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모두 일으키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완전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됨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증명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급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도랑으로 인도하는 눈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류에 반하는 것입니다. 5장의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천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온전해야 한다.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가능한 목표를 준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네, 성경은 절대적인 완벽함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그것을 모르시나요? 물론 ,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같은 것을 봅니다.

아마 11시 44분일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너희 아버지처럼 거룩해지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그건 불가능해. 맞아.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가능한 목표를 주시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그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매일 그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불가능한 기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단번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과 공급입니다.

우리는 축소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에 대한 그의 호의와 사랑이며,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받을 만하고, 우리는 천국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의 불쾌함을 받을 만하고, 그의 가족으로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그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체적 질병, 아마도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덜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 거듭거듭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행법을 주의해서 보세요. 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갖고, 우리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매일 그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48과 베드로전서 1장 등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절대적인 완벽이며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듣는,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거라는 격언은 틀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제자리에 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 은혜를 알아야 하는 동료 죄인으로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우리를 매일 그의 은혜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의 영에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계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래 있으며 그의 은혜와 영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다음 부분은 다시 한번 6장 1절에서 18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을 보여줍니다 . 그는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종교적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삶이 영적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평범한 남자나 여자와 구별한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1세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고,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그들을 크게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주었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금식했습니다. 예수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베푸는 것에 대해,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금식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우연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충돌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6장에 놀랐고, 아마 6절쯤일 겁니다. 많은 사제들조차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규칙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비롭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면서, 그는 그들을 거둬들여 질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들에게 내린 일곱 가지 화.

와! 그는 그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레위인과 많은 제사장 가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와!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의 가르침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봅니다.

주고, 섬기고, 무엇이든, 우리의 영적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바로 그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 장의 1~18절에 대한 주제 요약인 슬로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의를 행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핍한 자에게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문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요점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베푸는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인 듯하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온전히 받았느니라. 그들의 상은 사람들의 칭찬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의 종교는 땅 위로 올라가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닿지 않아. 땅에 붙어 있어. 정말 남자를 기쁘게 하는 놈들이야.

하지만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줄 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능한 한 비밀리에 하고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마십시오.

저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급진적인 본질을 놓쳤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던 것에 진지하게 결코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을 압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 알아낼 것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목표는 사람들이 "와, 그녀는 정말 영적으로 거인인가 보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여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세요.

피할 수 없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설교에서 예수님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의 정신, 마음까지 꿰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율법 자체에 적합하고, 적합합니다. 10 번째 계명, 좋은 슬픔은 마음 깊이 들어갑니다.

탐욕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정신에 따라 율법을 왜곡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의 변명을 거부합니다. 어머, 그는 그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에 추가한 전통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예수는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구약의 윤리를 회복합니다. 그가 그것을 발전시켰을까요? 물론입니다. 그의 인격 때문에, 그가 그의 영적 왕국을 가져오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그의 왕국이 아니라, 비록 그 직책들이 그 사람과 분리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제사장이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 손이 다른 손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 당신의 베푸는 것이 은밀하게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은밀하게 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면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위선자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상을 받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옷장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때문에 문자 그대로 기도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급진적인 본질과 과장법을 오해하여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점은, 글썄요, 그 요점은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한 번 큰 효과를 거두며 보여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한 남자가 무디 모임에 가서 이 무지한 설교자를 조롱했습니다.

무디는 크게 교육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성경을 열렬히 연구했으며,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십자군에서 무디는 지역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牧사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자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열렸고, 그의 마음을 복음에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디가 마이크를 가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형제님, 기도를 마치는 동안, 우리는 그런 찬송가를 부를게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것의 바리새적 성향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그의 도시 앞에서 빛날 기회였고, 무디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메시지, 이 십자군에서 빛날 것이지, 그런 다른 곳에서는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 그 남자는 정말 감명받았어요. 그는 이 남자가 진짜라고 말했어요. 그는 눈과 귀를 열었고, 신의 은총으로 신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무디의 단순한 메시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설교자보다 더 교육받은 무신론자는 더 교육받았지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실례 합니다, 무디가 산상 설교에서 예수의 윤리를 따랐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수. 가서 기도할 때는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비밀리에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가 네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들리게 하려고 헛된 말을 쌓아 올리는 이교도들처럼 되지 말라.

나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제단을 생각한다.

오, 세상에, 그들은 많은 말로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8절,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산상 설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하고 교화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예수님 의 가르침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16절, 당신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압니다. 그들은 온전히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금식할 때는 가능한 한 평범하게 보이세요.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너무 비참하게 보여서 보여주지 마세요. 당신은 은밀한 것을 보시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5장, 행복의 말씀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만약 6장, 1장에서 18장까지,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전도 등 우리 자신의 맥락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다음 6장 19-34절은 21세기만큼이나 1세기에도 관련성이 있는 영역,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자신의 부와 소유물을 다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는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과 녹이 파괴하고 도둑이 침입하여 흠치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으십시오 . 21은 놀라운 원칙입니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두는 곳으로 어느 정도 사람의 영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적용한 또 다른 사례는 제가 기독교인과 기독교 기관에 의해 잘못을 당하고 그들에게 못된 태도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았을 때 몇 번 사용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제 태도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주요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지지하는 것이므로, 자유주의 기업이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관에 의해 잘못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당신의 불쾌한 감정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24절.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쌓아 두어야 하지만, 우리는 돈을 위해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삶에서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는 놀랍게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하자면, 그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위해 염려해야 하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26절과 32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당신의 목숨에 대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에 대해,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숨은 몸에 있는 음식보다,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들을 돌보시고, 꽃들을 마치 새인 것처럼 화려하게 입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 하찮은 비인간적 생물들을 돌보신다. 너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천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백합을 아름답게 치장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3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에게는 이 문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수는 소유와 재정의 영역에서 세상적인 부를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부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부를 하나님의 왕국을 증진하는 데 사용하라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6절에서 34절로 넘어가서,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므로 필요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을 걱정하며 산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늘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감 있게 산다면, 물론 직장에서 일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도 당신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한다면, 당신의 삶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는 당신의 아버지이고, 당신은 그의 아들 또는 딸이며

,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을 산상 설교의 결론으로 보고, 몇몇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언급합니다 .

7:1에서 6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었다. 이것은 내 의역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자신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하지만 이것을 탄약으로 삼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산상수훈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정신, 당신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지식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당신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찾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그의 은혜, 그의 영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산상수훈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원리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너희가, 예수께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법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문맥상 좋은 것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나쁜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너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법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좋은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구하십시오. 이 경우, 1세기 청중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예언적 사역과 같은 성경의 내용은 우리를 아버지에 대한 의존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존중하기 위해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산비탈에서 제가 가르치는 것을 즐기고 있지만, 종교적인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상 설교에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은 넓은 문과 멸망으로 이끄는 쉬운 길을 따를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렵다. 문은 좁고 길은 어렵고,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비교적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 급진적인 예언적 가르침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멸을 느끼지 마십시오. 사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내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당신에게 바리새인의 종류가 아니라, 마음의 참된 의로움과 삶에서의 등등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시험해 보세요. 특히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시험해 보세요.

포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16. 당신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20절.

저의 훌륭한 체계신학자 로버트 J. 던츠바일러가 가르쳐 주었듯이, 성경의 가르침을 얻으려면 성경 전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신명기 18장에서 이미 볼 수 있는데, 주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선지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말,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앞 장에서 13장이나 15장 중 하나인데, 저는 신명기 13장이나 15장 중 하나를 놓쳤습니다. 13장이라면, 그 가르침은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전 계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강조점은 삶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실제로 자신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8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당신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예수가 그의 적들에게 한 일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 죄를 확신시킬 수 있겠느냐? 그의 죄 없는 삶이 속죄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가르침을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하라, 요한일서 4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제자들도 있다. 나에게 마태복음 7:21,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거기 또 있느니라, 하늘에 계신 이가.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NIV가 한 번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두 번만 있었습니다. 세 번입니다. 정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은사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초자연적 현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시험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브라질에서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말했어요, 우리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가톨릭 교회가 있고, 복음주의 교회가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종파도 있습니다. 제 미국 학생이 인내와 배도에 대한 이 특정 선택 과목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어 본문에서 작업하고, 구절을 하나하나 공부하며 천천히 신학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것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를 모를 수 있을까요? 그는 23 절에서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는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람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브라질을 컬트 동물원으로 만들지 않았죠, 알겠어요? 많은 복음주의자들, 강력한 복음주의 장로교회가 있죠. 하지만 컬트도 있습니다. 그는 특정 컬트와 그것에 의해 치유된 사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영적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사람의 팔에 가서 벌리고, 종양을 제거하고, 닫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백마법과 흑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확실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정확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끝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어떻게 진실을 판단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 그의 대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더 잘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컬트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은 미국 학생들은 결코 그것과 이 구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속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든 매우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전체 세계관과 그림의 일부여야 하며 우리가 현실을 평가하는 레퍼토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으로 설교를 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갈 위대한 선지자인 주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산상에서 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순종하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바위 위에 지은 집의 비유에서 둘 다 진실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이 부족해서 재앙이 닥쳤을 때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견고한 바위 위에 짓는 사람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름다운 작은 우화입니다.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기독교인에게도 닥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재난이 당신과 당신의 집을 덮치면, 당신은 쓰러지고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거인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은혜가 우리를 수면 위로 다시 들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기도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위대한 선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맥락에서, 특히 산상 설교의 가르침에서요.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위대한 선지자이신 것에 대해 조금 후에 공유하겠지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맥락에서 공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실제로 2장과 4장을 통과합니다. 장 구분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구절이 아니며,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결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직책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직책,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역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지만 그의 장기적인 목표는 구약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세 가지 직책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들은 제사장의 일을 건드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 그의 아들로 합치십시오. 그는 그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주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라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듯이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룰 때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2부입니다.